

문화광장



김 정 호
경희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

안성기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요가 없다”라는 말을 남긴 영화배우이자, 강수연과 함께 1980·90년대의 중요한 한국 영화엔 반드시 등장한 배우이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송강호와 같은 비중의 배우로, 이 배우가 나오는 영화는 최소한 ‘기분은 한다’를 넘어서 작품성이나 시의성이 두드러진 경우가 많아서 ‘그가 나오는가?’가 영화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장호, 임권택, 배창호, 정지영, 이명세, 강우석 감독의 영화에 출연한 것이다.

안성기를 빼놓고 80·90년대 한국 영화를 논할 수 없다

1952년생인 그는 1957년 아역배우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1980년 이장호 감독의 ‘바람 불어 좋은 날’에서 농촌에서 올라와 서울 번두리 개발 지역에서 중국집 배달원을 하는 덕배 역할을 맡으면서 성인 배우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작품 선택 경향이 드러나게 된다. 이 영화는 급격한 농촌의 붕괴와 서울의 확장을 보여주는 사실주의 영화로 평가받고 있다.

1981년 이장호의 ‘어둠의 자식들’에도 출연하고서는, 이장호의 조감독 출신인 배창호 감독의 데뷔작 ‘꼬방동네 사람들’ (1982)에서 소매치기 전과자 출신으로 아들과 아내를 찾는 택시 운전사의 역할을 맡는다. 같은 사실주의 계열의 영화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1981)에서는 1975년 서해염전 폐업의 풍경을 담아내는 데 성공했다.

임권택 감독과는 ‘만다라’ (1981)에서 만나 구도승 법운의 역할을 맡는다. 임권택은 우리나라 장례식의 풍경을 담은 민족지적 영화 ‘축제’ (1996)와 ‘화장’ (2015)을 만드는데, 이 두 편의 영화에서도 안성기는 주연을 맡는다.

항상 심각한 작품에만 출연한 것은 아니다. 배창호 감독의 조감독 출신인 이명세 감독의 데뷔작 ‘개그맨’ (1989)에는 스타를 꿈꾸는 이발사 역의 배창호와 함께 출연해 영화감독을 꿈꾸는 이류 개그맨의 역할을 맡아 찰리 채플린에 대한 오마주를 담아낸다.

이명세 감독의 ‘인정사정 볼 것 없다’ (1999)에서는 냉혹한 킬러의 역할을 맡아서 형사 박중훈과 폭우속의 대결을 펼치는데 이 장면은 외국영화에도 인용된다. 안성기와 박중훈은 박광수 감독의 데뷔작 ‘철수

와 만수’ (1988)에서 서울강남고속터미널 근처 옥상의 광고판을 페인트 칠하다 시국사건에 휘말리는 블랙코미디를 잘 그려냈다. 이 콤비는 강우석 감독의 투캅스 시리즈에서도 같이 출연하고, 이준익 감독의 ‘라디오 스타’ (2006)에서도 다시 만난다. ‘남부군’ (1990)의 이태 역, 월남전 배경의 안정호 동맹 소설을 영화화한 ‘하얀 전쟁’ (1992)에서는 월남전 참전용사 출신의 소설가 역할을 맡기도 했다. 두 작품 모두 정지영의 연출이다. 정지영과는 판사에게 석궁을 쏜 전직 교수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부러진 화살’ (2012)에서 다시 작업을 한다. 조경래 원작의 ‘태백산맥’ (1994)에서도 주연을 맡았다.

영화를 움직이는 초상화라고도 한다. 유튜브 한국고전영화 채널에서 그의 영화를 만나보자.

사설

법 개정으로 4·3행불인 유해 발굴 탄력

제주 4·3당시 도의 지역에서 암매장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이 본격화된다.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의 유해를 일괄 화장 후 안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일괄 화장 후 안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발굴된 유해가 그대로 보존돼 유족에게 인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유해 발굴 전담부서 신설과 유족 재회를 통한 과학적인 신원 확인 체계도 명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한국전쟁 전후 이념대립으로 발생한 민간인 집단 학살과 관련해 발굴된 유해

를 한꺼번에 화장해 합사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제주도와 4·3 희생자 유족회가 집단 화장과 합사 방침을 철회하고 유해 봉환을 통해 4·3희생자의 신원 확인에 나서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4·3유족의 뜻을 반영한 법 개정은 환영할 일이다. 4·3희생자 유족회도 과거사정리법 개정은 유족들의 오랜 요구에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으로 응답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담 조직 신설과 예산 확보 등이 체계화되면서 유해 발굴 및 신원 확인 작업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전국 15개 형무소에 분산 수감됐다가 행방불명된 4·3 희생자는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억울하게 돌아간 희생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준공후 미분양 업계 자구책도 내놔야 할 때

지난해 중반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동시에 급격하게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12월 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650호로 전달보다 130호나 폭증했다. 지난해 8월 이후 3개월째 감소하다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소위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2030호로 전달 1965호보다 65호가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공사비 등을 투입하고도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만큼 바로 업계의 경영난으로 이어진다. 2024년 12월 1746호로 최고치를 보였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4월 1581호까지 줄었다가 10월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사상 처음으로 2000호를 넘어섰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주택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쌓였던 물량 자체를 소화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문을 닫은 도내 건설업체는 종합건설 21곳, 전문건설 69곳 등 90개소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다주택자 세율과 법인 중과세율도 1년간 한시적으로 4% 감면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인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너무 높아진 고분양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제주도민들이 모든 물량을 소화하기는 힘들다. ‘공방’이 아닌 ‘공생’을 위해 제주도정 차원에서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임대 주택 전환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고 업계에서도 스스로 특단의 자구책을 내놔야 할 때다.

열린마당

음식점 화재, K급 소화기로 예방하자



정 성 은
제주소방서 아라119센터

겨울철은 추운 날씨로 화기 취급이 증가하고 건조한 날씨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음식점은 불과 기름과 전기가 동시에 사용되는 공간으로 화재 위험이 높다. 음식점 화재의 상당수는 조리 중 조리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일상의 작은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을 일상적인 습관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주방화재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K급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으며, 물을 뿌리면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울 수 있다. 식용유 화재의 적응성을 가진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음식점 주방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음식물 조리 시 가급적 자리 지키기, 식당규모에 알맞은 소방시설 설치, 배기덕트 0.5mm 이상 간판 등 불연 재료 설치, 정기적인 기름짜기 제거 등의 안전습관을 실천해야 한다.

화재는 예고 없이 순식간에 찾아와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을 초래한다. 설마 하는 마음을 버리고 생활 속 화재예방만이 존엄한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뉴스-in

“장보기·점심 식사로 전통시장 활력을”

도, 공직자 참여 연중 캠페인

○…제주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공공 부문 직원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는 ‘전통시장·골목상권 토닥토닥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일 발표.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서 장보기와 점심 식사를 적극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2월 특별 운영기간에는 주 2회 이상 전통시장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식사한 뒤 인증 사진을 SNS에 공유하도록 권장.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 캠페인이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연말까지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 전선희기자

“탐나는전 효과 이어지도록”

○…제주시는 2월 한 달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적립률이 20%로 상향되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이용 확대에 이어질 수 있게 ‘지역 상권 소비 심백(心百) 캠페인’을 이달부터 연중 추진키로. 시는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를 2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열고, 제주시통장협의회에서 ‘온라인 클릭 대신 동네 상권 이용하기, 배달 주문 시 공공배달앱 우선 이용하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시장에서 다가오는 설 명절 제주용품을 구입하고 음식점도 이용.

김완근 시장은 “시민단체와 협력해 골목형 상점이 이용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우리 동네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캠페인에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 문미숙기자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묘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 주 토 박 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도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